

안녕하세요? 지식 캠퍼스를 통해

전염병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전염병은 언제부터
인류와 함께했을까요?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을 감염시키는 미생물은

많은 경우에 사람과 동물을
동시에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탄생되면서부터

미생물 감염에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란 미생물이
사람에게 감염된 후

다른 사람에게
번져나가는 병을 가리키지만

병을 일으키지 않고
사람에게 감염되는 미생물은

병을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류는 탄생과 더불어 전염병과 함께
역사를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억 년 전의 파충류 화석에서도

감염에 의해 염증이
발생한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포유류의 경우에는
화석에 나타나는 감염의 흔적이

600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을 예로 들면, 수천 년 전
페루에 살았던 인디언들의 유골에서

척추 결핵의 흔적을 찾을 수 있고

이집트의 미라나
파피루스의 기록을 보면

결핵과 두창 즉 천연두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창의 병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사람에게 접종함으로써

예방을 기대하는 인도법은
고대 중국에서 시도된 방법인데요.

인도법은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방법이지만

두창의 폐해가 얼마나 컸으면

이와 같은 방법이 시도되었을까 하고
반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로마는 역사적으로 고대 서양에서
그리스와 더불어 융성했던 국가였습니다.

기원전 **146**년 코린토스 전투에서
로마가 그리스에 승리를 거두면서

로마가 유럽의 유일한
문명국가로 자리 잡았는데요.

기원전 **8**세기경
이탈리아 중부에서 시작한 작은 마을이

당대 최고 국가인 그리스를 물리치고
유럽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기원전 **753**년에
로마를 세웠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원전 **1**세기에 활약한

로마의 역사가
'마르쿠스 테렌티우스 바로'가

설정한 것으로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로마는 기원전 **8**세기에 나라가
성립된 후 왕이 나라를 통치했으나

기원전 **508**년 귀족과 평민계급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 시대를 열면서

한 명의 권력자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분점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미약한 평민계급은
권리를 찾기 위해

귀족계급에게 끊임없이 투쟁을 벌였고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타협을 반복하며 점진적으로

한 명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가
과두정 체제를 이루었습니다.

기원전 272년경 로마는

오늘날 이탈리아 전역을
아우르는 동맹 체제를 이루었고

기원전 146년에는
그리스를 함락시키면서

한 세기 이상 지속된 세 차례의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함으로써

페니키아의 통치하에 있던
카르타고를 정복하고

지중해 주변을 모두 로마라는
대제국 아래에 두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 말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집권하면서

개인이 통치하는 재정이 시작되었고
초기의 로마제국은

약 200년간 '팍스 로마나'라 불리는
태평성대를 구가하였으며

라틴어 문학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지중해 주변 전역을
통치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하였으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오늘날 서양 문명의 근간을 이룰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했고
지금도 그 영향이 남아있습니다.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로 옮기면서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게 됩니다.

서로마는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들어오는 이민족들의 침입을 받던 중

마지막 황제인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가

게르만족 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
강제로 퇴위 됨으로써

47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세계사 책에서 고대가 끝나고

중세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의학의 역사에서는
고대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대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가며
전성기를 구가하던 로마제국에

말라리아가 유행하면서
국력이 약해진 것이 결과적으로

제국의 멸망에 이른
이유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에 유행한
전염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루키우스 베루스 황제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함께 통치하던 165년,
시리아에 원정 중인 로마군에

두창으로 추정되는 병이 발생했습니다.

승리를 거둔 로마 군대가 해산하자
고향으로 돌아간 군인들이

이 병을 퍼트리기 시작했고
169년에 세상을 떠난 베루스는 물론

그의 사후에 홀로 통치를 하다
180년에 세상을 떠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이 병에 의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는
왕위를 막시무스에게 넘기려는

그의 아들인 코모두스가
살해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것은 영화 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우렐리우스 통치기에
이미 공동 황제 역할을 하다

그의 뒤를 이어 황제에 오른
코모두스도 192년에

암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편에서는 두창에 의해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당시에 두창은 이탈리아
거의 전역은 물론

로마 제국 바깥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들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두창이 한창
맹위를 떨치기 시작하던 166년

갈레노스는 고향인 소아시아로 가서
168년에 황제가 호출할 때까지

황제의 시의 역할을
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몇 역사가들은 이것이
갈레노스가 전염병을 피해 도망갔다가

유행이 끝난 후에 돌아온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갈레노스는 이 병에 대해 열, 설사,
인두의 염증을 기록으로 남겼으나

정확한 병명을 추적하기에는
정보가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행한 병이

두창 이외에 홍역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게는 3명의 황제의
목숨을 앗아간 두창이지만

그보다 더 로마에 위협이 된 것은
말라리아였습니다.

말라리아는 주기적으로
열이 오르내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기가 전파하는 전염병으로
원충이 원생동물이므로

미생물학에서는 가장 크다는 이유로

의학에서 기생충학에서
다루는 전염병입니다.

로마의 영토가 넓어지면서
모기가 분포하는 지역도 넓어진 것이

당시 말라리아가 수시로
창궐한 이유입니다.

말라리아는 로마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 풍토병이었으나

감염 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열대열 말라리아가
만연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를 넓혀가면서 점령국에서
노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들이 이탈리아 반도로 와서

열대열 말라리아를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

사망자를 양산하는
대유행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말라리아 원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모기의 증식만 막을 수 있다면

말라리아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팍스 로마나 시대가 지난 후
정치적으로 혼란이 계속되면서

하천과 해안의 정비가 부실하여
늪지대가 증가한 것도

말라리아 대유행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말라리아가 창궐하여 사람들을
사지에 몰아넣을 때

감염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늪지대를 방문했거나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나쁜-mal' '공기-aria'

그래서 말라리아는
늪지대의 나쁜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은 이름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로마 역사가 바로는

'보이지 않지만 늪지대에 살고 있는
어떤 미세한 물질이

입과 코를 통해 인체에 들어오는
질병을 일으킨다'와 같은 기록을 남기면서

집을 지을 때는 늪지대를
피해야 한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열은

군대의 전투력을
현저히 약화시킴으로써

전투에 임할 군인들의
사기를 꺾어놓았고

말라리아 유행이 더 잘 일어나던
농촌 지역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업 생산성이 떨어졌으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도시화는

국력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를 한 것입니다.

이때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면서

태양이 빛나는 시실리 섬을 찾아온
서 고트의 통치자 알라리크는

410년 로마를 점령한 후
더 남쪽으로 내려가던 중

시실리 섬을 눈앞에 둔 코센차에서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66년**이 지난 **476년**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침입에 의해 멸망하지만

3세기 이후 말라리아가 창궐한 것이
국력을 약화시켜서 과거의 영화를 잃고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말라리아는 로마 이전인
기원전 **4세기**에

20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12년간 정복군주로 활약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으로

의심되기도 하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
로마 시대에 역사가 바로가

‘나쁜 공기가 전염병을 일으킨다’는
주장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때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자

인구분포가 달라지고
통치자들의 사망은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은 역사적으로 흔히
체제변화의 원인이 되는데

로마의 경우에는 그 체제가 완전히
이방인에 의해 바뀌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생활 자체의 변화가 생긴 것이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염병은 고대로부터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큼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염병이 과거 최고의 국가인

로마를 멸망시키게 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전염병의 위력을 좀 느끼셨습니까?

세상을 바꾼 전염병 강의를 통해

전염병으로 인해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염병을 의학적인 시각이 아닌

인문학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창궐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전염병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고스란히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시대의 역사와 인간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를
찬찬히 돌아본다면

전염병이 왜 지금 창궐하는지

전염병에 대응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